

쇼핑시즌 개막... 카드업계, 직구족에 통 큰 할인·캐시백

현대카드 최대 25달러 즉시 할인
NH농협카드 최대 7만원 캐시백
신한·우리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 27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11월에 예정된 전세계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카드사들이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쇼핑 시즌의 높은 할인율에 더해 카드사별로 추가로 제공하는 즉시 할인, 캐시백 제공 혜택을 잘 이용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념해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25달러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광군제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2만명

에게 8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결제 시 각각 25달러와 10달러를 즉시 할인해준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선착순 1만명에게 광군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카드는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는 '직구족'을 대상으로 캐시백과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아마존·육스·매치스패션 등

온라인 가맹점 합산 해외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7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NH농협카드로 50달러, 100달러 이상 결제 시 각각 10달러, 25달러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워진 만큼 집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혜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광군제 기간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30달러 즉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150달러 이상 결제 시 30달러(선착순 1000건) ▲50달러 이상 8달러(선착순 1만3000건) ▲35달러 이상 6달러(선착순 5000건) 즉시 할인을 적용한다. 단 혜택은 각 구간별 1회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에서 150달러 이상 결제 시 15% 할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증가해온 해외직구 수요에 따라 해외 쇼핑물과 제휴를 통해 제공해온 이벤트를 올해에도 진행하게 됐다"며 "연말 대목

에 쇼핑을 할 때 신한카드로 결제해 추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카드에서도 즉시 할인·배송비 할인·캐시백 등 다양한 직구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7000명에 한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달러 이상 결제 시 10달러 즉시 할인을 제공하며, 우리JCB카드로 35달러 이상 결제할 경우 5000명에게 6달러 즉시할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포터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송비 10달러 할인 ▲오픈마켓에서 60달러 이상 결제 시 최대 15달러 즉시할인 및 추첨 통해 경품 지급 ▲아이허브 최대 12% 즉시할인 ▲캐치패션 15% 캐시백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휴면예금 조회 후, 계좌로 잔액 받으세요”

금융위, 여카운트인포 서비스 개선
1000만원 이하 잔액 10분내로 지급



앞으로는 여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잔액을 본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여카운트인포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소액계좌를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

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서 민 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에서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지난 10월 기준 150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휴면예금 조회는 여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 잔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10분내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퇴직연금 원금대비 수익률 쉽게 보세요”

금감원, 운용보고서 개편안 확정
표준요약서 도입, 수수료 등 안내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만 봐도 납입한 원금 대비 수익률과 향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먼저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요약서를 새로 만들고,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을 기재한다. 또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적립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보수액도 추가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이와 함께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다수 사업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운용단계보다 낮게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후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가입자가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카카오페이가서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원 하는 직장인대출’ 오픈



우리은행은 생활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상품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오픈API를 활용해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대출상품 한도 및 금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으로 연동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은 현재 직장 6개월 이상 재중 중이고,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 대상의 신용대출이다. 서류 제출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연소득의 최대 150%)이다. 급여이체 0.2%포인트, 우리카드 이용 시 0.1%포인트 등 최대 0.7%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오픈API를 활용한

신용대출 상품 제공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와 함께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과제를 적극 발굴해하고 있다”며 “디지털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비대면 신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신한은행 L/G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상이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때 사용하는 증명서다.

수입신용장을 거래하는 기업고객은 은행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기업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입신용장 발행에서 결제에 이르는 수입신용장업무 전 과정에 대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비대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은행에서 발급 승인 후 알림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비대면으로 이용 시 발급수수료가 50% 감면되는 등 간편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연 12% ‘하나 일리 있는 적금’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최대 연 12%의 적금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일리 있는 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6개월간 삼성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 ‘삼성아멕스블루카드’로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누적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다.

특히, ‘하나 일리 있는 적금’은 파격적인 금리 제공과 함께 기존 제휴 상품 대비 우대금리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카드사용 조건만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 일리 있는 적금은 모바일 전용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월 납입액은 10만원, 가입기간은 1년이며,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한시 판매한다. 또한 출시 이벤트로 하나은행 모델인 축구선수 손흥민의 한정판 이모티



콘을 선착순 2000명에게 선물로 증정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손님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자, 매월 1만원의 착한소비로 최대 연 12%의 착한금리가 가능한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